



‘우리끼리 쓰는 말’을 바르게 써 봅시다

\_\_\_\_\_학년 \_\_\_\_\_반

이름 \_\_\_\_\_

1 철희 어머니와 아이들이 나눈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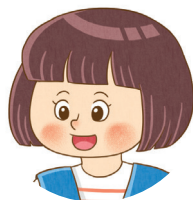
철희야, 내일 진희 생일잔치에 너도 가니?

당빠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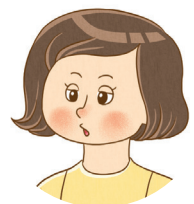
당빠? 그게 뭐야?

엄마는 그것도 몰라요?  
헤미야, 내일 진희 생일잔치에  
탕수육도 시킨대. 난 부먹이 좋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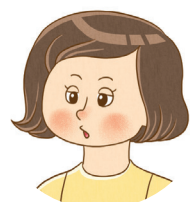
야. 탕수육은 찍먹이지.

부먹? 찍먹?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부먹은 뭐고 찍먹은 또 뭐니?



그런 게 있어요. 탕수육 먹고  
싶었는데 개이득이다.

개이득? 그건 또 무슨 말이니?  
도통 무슨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1) 철희 어머니께서 철희와 헤미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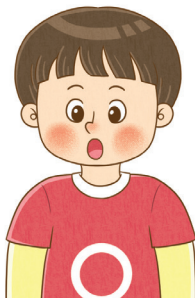
(2) 밑줄 친 '당빠', '부먹', '찍먹', '개이득'과 같은 말을 써 본 적이 있나요?

(3) 앞의 대화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은어란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특정 집단에서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끼리만 사용하는 말처럼요. 이러한 은어는 시대 변화에 따라 나타난 현상에 대한 일시적인 표현이라합니다.

## 2 우리끼리 쓰는 말을 바르게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우선 우리끼리만 쓰는 말을 찾아봐야 해.



그다음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해.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낱말을 찾아봐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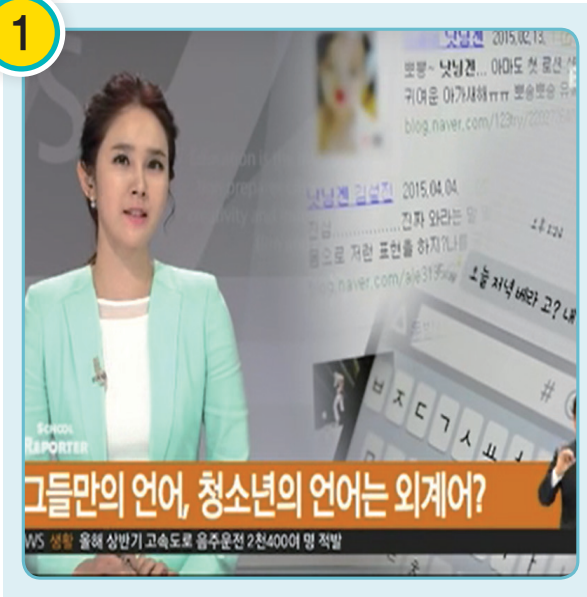


찾은 낱말 중 가장 적절한 낱말을 골라 쓰면 돼.



### 3 뉴스를 보고 우리끼리 쓰는 말의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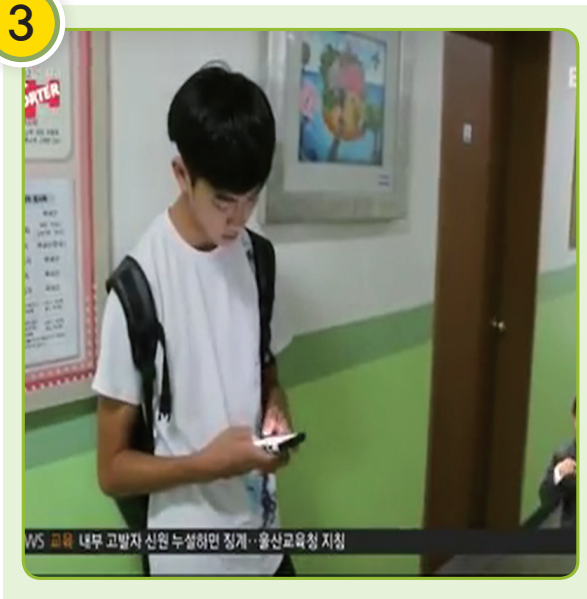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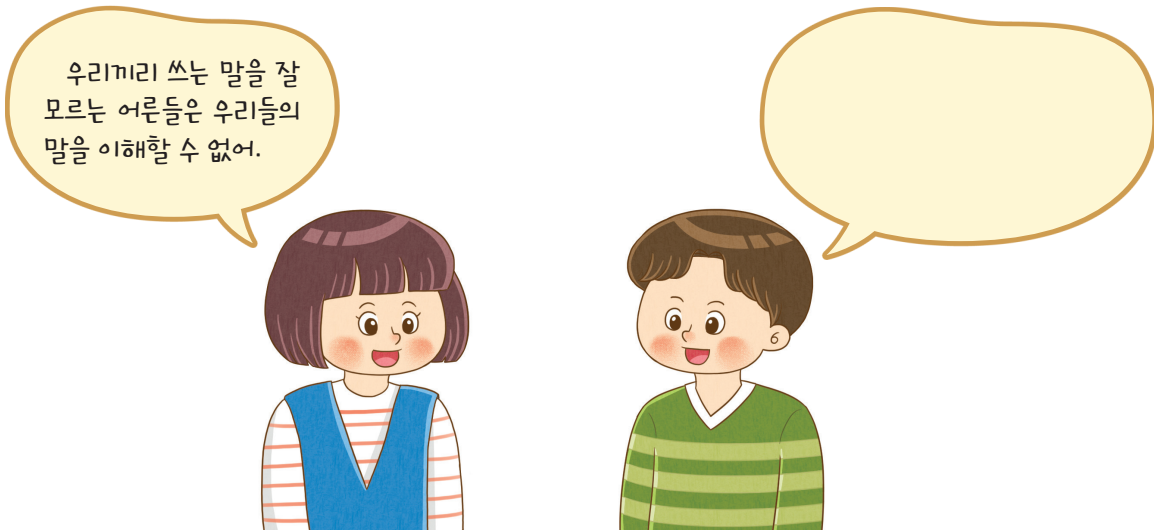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뉴스-그들만의 언어, 청소년의 언어는 외계어?」, 2015. 5. 18.

(1) 이 영상에서 학생들은 어떤 말을 사용했나요?

(2) 우리끼리 쓰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 4 우리끼리 쓰는 말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5 우리들끼리만 쓰는 말을 더 찾아보고 그 말을 대신할 알맞은 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끼리만 쓰는 말	대신할 말 찾아보기	가장 적절한 말 선택하기
예) 찼다	잘한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멋지다	멋지다